

## 《哥窯瓷器展》

2017. 11. 12 - 2018. 08. 31

北京故宮博物院

北京市东城区景山前街4号

박정민\*

작년 늦가을부터 중국 북경 고궁박물관에서는 《가요자기전(哥窯瓷器展)》이 개최되고 있다. 개요(哥窑)는 여요(汝窑), 관요(官窑), 정요(定窑), 균요(鈞窑)와 함께 중국 송대(宋代) 오대명요(五代名窑)로 꼽히지만 개요만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린 것은 중국에서도 드문 일이다.

가요는 중국 도자사(陶瓷史)에서 난해하고 신비롭게 인식되는 자기로 명확한 제작시기와 생산된 가마터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구 중이다.

송대 오대명요 중 하나인 개요는 정작 송대 문헌에서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개요에 대한 문헌기록은 원대(元代) 지정(至正) 23년(1363) 『지정직기(至正直記)』에 ‘가가동요(哥哥洞窑)’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 듯하다.

가요는 중국 절강성 용천(龍泉)에 가마를 열었던 장생일(章生一), 장생이(章生二) 형제의 가마 중에 형의 가마[哥窯]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있다. 동생인 장생이의 가마는 아우의 가마[弟窯]라 했다지만 두 가마 모두 구체적인 가마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명대(明代) 『칠수류고속편(七修類稿續編)』에는 장생일, 장생이 형제의 가마가 각각 절강성 처주(處州)의 개요와 용천요(龍泉窯)이며 가마의 이름은 지명(地名)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가요 자기의 특징은 황백색 혹은 아백색 유약이 시유된 그릇의 표면에 어지러이 자리한 검거나 누런 균열이다. 개요는 그릇의 균열이 장식효과가 된 특별한 자기이다.

이러한 균열은 유약과 바탕흙[胎土]의 팽창률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개요

\* 명지대학교 교수

의 독특한 흑색과 황색 균열은 금사철선(金絲鐵線)이라는 단어로 알려졌다. 그릇을 완벽하게 감싼 유약과 달리 갈라진 유약의 결합은 장인의 치밀한 의도를 통해 가요 자기만의 독특한 문양으로 재탄생했다.

《가요자기전(哥窯瓷器展)》은 고궁박물관 연희궁(延禧宮)에서 열리고 있다. 연희궁은 북경 고궁의 동육궁(東六宮) 중 하나로 명, 청시기 비빈들의 처소로 사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고궁박물관 고도자연연구센터[古陶瓷研究中心]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되고 있다. 고궁박물관 고도자연연구센터는 2010년부터 해마다 중요한 요장(窯場)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가요자기전(哥窯瓷器展)》은 그 마지막 전시이다.

《가요자기전(哥窯瓷器展)》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요관련 연구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전시는 학술세미나와 도록간행과 함께 기획되었으며 고궁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하여 수도박물관, 산동박물관, 상해박물관, 용천청자박물관,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항주시문물고고연구소 등의 소장품이 함께 자리한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1주제는 '세대에 걸친 보배[累世遺珍]로 가요의 위상을 소개하고 중요 전세품(傳世品)을 전시한다. 가요의 그릇은 주로 청동이나 옥으로 만든 고대(古代)의 예기(禮器)를 모방했다.

2주제는 '가마터의 수수께끼[窯址之謎]'이다. 가요의 제작지를 추론하기 위해 전세품(傳世品)과 함께 가요의 특징이 드러나는 출토품을 소개한다. 특히 항주 노호동요(老虎洞窯)의 원대(元代)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가요의 특징이 드러나는 '가요형(哥窯型)' 파편과 절강성 용천요(龍泉窯)에서 출토된 가요풍의 유물은 가요의 제작지 유추에 중요한 자료이다.

마지막 3주제는 '끓임없는 여운[余韻綿長]'이다. 골동품 같은 독특한 미감이 특징인 가요 자기는 명, 청대를 지나며 당시 황실과 사대부들의 완물(玩物), 청공(淸供) 취향과 연결되었다. 특히 명나라 선덕제와 청나라 강희제, 옹정제 때는 경덕진의 어요에서 가요의 특징을 담아낸 방작들이 여러 점 제작되었다. 이때 제작된 방가요(仿哥窯) 자기들은 원래 가요 자기와는 달리 명, 청 황실의 취향이 반영된 화려하고 다양하며 새로운 형태이다. 조선 후기의 문인사회 역시 가요 자기에 대해 인식하였다. 김홍도 등 여러 화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당시 골동완상품에 가요의 그릇이 자리한다.

《가요자기전(哥窯瓷器展)》은 '가요'만을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이다. 가요 자기의 금사철선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요의 장식효과는 방고(仿古) 취향과 연결되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명성을 얻었다. 《가요자기전(哥窯瓷器展)》은 중국 도자사 뿐만 아니라 중세 이후 동아시아의 완상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